

國庫 보조와 大學財政

高 聖 三

(中央大 經營學科)

1. 序 言

오늘날 우리나라의 大學은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多元化되고 複合的인 사회 체제 속에서 大學이 맡고 있는 책무와 기능을 한마디로 언급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이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大學像을 탈피하여 大學이 처한 여러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2000 년대의 發展的인 未來社會를 능동적으로 개척해야 할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음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 大學의 현실적인 당면 과제는 과거 '80 년대 정부의 개방적인 教育政策과 고급 인력의 수요 증대 및 國民의 높은 교육열에 기인한 대학 인구의 대학 규모의 급격한 팽창에 따라 質的인 발전보다는 量的인 팽창만을 가져 온 상태에서 파생된 문제를 해결함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大學教育의 量的인 팽창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質的인 발전에 전념해야 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質的인 발전에는 財政的인 뒷받침이 必須要素임은 두말 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최근까지 大學의 財政을 학생들의 登錄金에만 의존하여 왔던 私立大學은 이제 설상가상으로 학

생들의 등록금 引下 및 凍結 등의 강경한 주장과 장학금 및 복지 시설 등의 대폭적인 확충, 敎職員의 증가와 처우 개선 요구 등에 의하여 그 財政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본래 大學의 財政은 대학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 되는 것으로 大學의 財政이 건전하지 못하면 바로 大學教育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私立大學의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 지탄과 민축을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은 결과적으로 大學教育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財政이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敎育과 財政의 순서가 바뀌고 교육 우선의 정책이 財政優位의 經營主導로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私立大學의 財政 現況을 선진국, 특히 미국·일본 등과 비교·검토하고 이들 국가에서 각 私立大學의 재정에 寄與 또는 補助하고 있는 내용을 分析·檢討하여 우리 私立大學의 실정에 알맞은 合理的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私立大學의 公益性和 國庫支援의 當爲性

私立大學에 대한 國庫支援 문제는 먼저 私立大學이 왜 政府로부터 國庫支援을 받을 수 있는

가 또는 政府는 왜 私立大學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當爲性과 이의 근거가 되는 사립대학의 公益性을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私立大學의 발전 과정 및 私立大學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私立大學들은 近代化의 여명기에 조국의 근대화론 위하여 기여하였고,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체제 하에서는 국권 회복의 열과 힘을 심고 키워 왔다. 8·15 광복 직후 건국 초기에는 國論統一에 이바지했고 6·25 전쟁 시에는 국토 방위의 역군들을 키웠다. 또한 '70년대 이후 工業化 過程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여 국가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¹⁾

1905년 5월 최초의 고등교육 기관인 보성전문학교가 문을 열었다. 근대기에 학교라고는 1895년에 설립된 소학교와 사범학교가 있었고 1899년에 창립을 본 公立中學校가 있었을 뿐, 대학이라고는 公立조차 없었던 시기에 지금의 大學이라고 할 수 있는 私立 보성전문학교가 설립되어 또 하나의 사립 고등교육 기관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1907년 3월에는 숭실대학이 개교하였다. 이 때는 구한국이 종말을 고하는 시기로 政治的으로는 침략적인 외세 앞에 국권이 침탈 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급박한 시대였으며, 社會的으로는 西歐文明이 우리 文化에 대한 충격 요소로 등장하여 이를 수용하는 작업이 추진되던 때였다. 이때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로부터 나라를 건지고 새로운 문명에 접해 이를 수용하는 임무가 이들 私立大學에 주어진 것이다. 이 시기의 私立大學들은 그들의 미숙성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충실했던 것이다.

1910년, 이 나라가 침략적인 외세 앞에 국권을 지키는 데 실패했던 암울한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이들 사립대학들은 '教育立國'의 기치를 들고 국권 회복을 위한 인재 양성에 전념하였으며 1917년에는 연희전문학교, 이화여자

전문학교 등의 사립 교육 기관들도 이에 참여하여 이러한 목적에 헌신하였다. 이들 대학들은 學生들에게 民族意識을 고취하고 독립된 나라의 등량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과 지식, 그리고 기술을 몸에 익히게 하였다. 이 무렵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등의 고등교육 기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들 기관들은 침략 세력이 직접 운영한 기관이었다는 점에서 私立大學보다 民族意識을 일깨우고 이 땅에 헌신하게 하는 교육을 펴기에는 제약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이 문을 열 때까지는 이들 私立 고등교육 기관들이 社會·經濟·教育 등 모든 영역의 고급 인력 양성을 전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경성제국대학이 정규의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우 한정된 한국인만을 수용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다수의 인재 양성은 私立大學에 의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당시 침략 세력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리되었던 官營機關으로서의 경성제국대학은 그 설립 목적이 식민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었으므로 민족의 獨立과 國權回復에는 그다지 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시대에는 私立大學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이 땅에 애정을 갖기란 쉽지 않았다. 이 때의 私立이 아닌 公立大學들은 대체로 착취와 억압을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비록 높은 수준의 학문이 이곳에서 교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애정의 결핍으로 침략 세력에 봉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시대에 있어서의 私立大學의 민족적 공헌은 보다 돋보이는 것이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私立大學은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많은 공적을 쌓았다. 國立大學이 여기저기 산재한 대학들을 연합하는 형식으로 새롭게 구성되게 됨으로써 '國大案'의 물의를 빚는 동안 私立大學들은 이 나라의 이데올로기 선택과 국민 통합에 기여하여 독립된 국가의 기틀을 튼튼히 하였다. 국가 재건 시기인 이 시대의 大學은 아직 정돈되지 않은 당시의 사회상에 비추어 볼 때 그 어느 곳보다 先進된 곳이었으며

1) 安基成, "私立大學의 公益性", 大學教育, 제39호, 1989.5, pp.10~15.

로 敎育과 研究에만 머물러 있지 못하고 社會를 先導하는 입장에서 社會의 여러 事件들과 크게 맞물려 있었다. 때문에 大學의 사회적 역할은 매우 컸던 것이다. 政府 樹立 당시의 政治的·社會的 현상은 이들 대학에 의한 선택이 적지 않았다고 하여도 크게 과장된 것은 아니다.

이후 우리의 現代史를 통하여 줄곧 大學은 學問과 文化, 그리고 科學을 유지·발전하는 데 기여했으며 社會를 개혁하는 데도 앞장 섰다. 민족 상잔의 6·25 동란 중에서도 꾸준히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을 쉬지 않았고 국토 방위에도 앞장 섰다. 또한 이 땅의 民主主義를 위해서 4·19, 6·29라는 기록을 남기는 등 社會改革은 아직도 大學이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産業化를 촉진·가능하게 한 것도 大學이다. 우리나라가 오늘날과 같은 경제 목표를 달성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分配正義를 요구하게 된 것도 大學이 이룩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정치 지도자의 지도력이 뛰어났다고 하더라도 社會·經濟의 모든 영역에서 이를 주도할 훈련된 인재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성과에 대한 공헌을 대학 중에서 굳이 私立大學에 돌리는 것은 이 대학들이 國·公立大學보다 그 數에 있어서 壓倒的으로 많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 하나 없이 굳건히 私立大學 스스로가 역경을 딛고 세운 수훈이라는 점에서도 이 대학들의 社會的 공헌은 상당히 값있는 것이다.

이러한 私立大學의 국가 발전에의 기여도와 公益性을 고려하여 볼 때, 그간 國·公立大學에 비하여 私立大學 學生들의 負擔이 월등히 컸던 관

제로 國·公·私立大學 사이에 학생 부담의 형평을 잃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政府가 私立大學의 운영에 國·公立大學과 같이 재정 지원 및 국고 보조를 해야 한다는 當爲論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私立大學이 과거·현재 및 미래에도 커다란 공헌을 해 왔고, 또 할 것이라는 점 외에도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²⁾

첫째로 大學의 敎育效果가 社會統合, 社會充員, 社會革新 내지는 社會移動 촉진 등에 크게 기여하고, 둘째로 대학교육을 위한 敎育비가 受益者負擔原則에 따라 조달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부의 각종 불가 통계, 국민 부담의 능력 한계 등 국가 정책 입장에서 각종 직·간접적인 통계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의 재현이 있으며, 셋째로 政治·社會·經濟의 環境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각종 소요 재원의 급격한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3. 私立大學의 財政 收入源과 實狀

大學의 財政收入은 크게 학생 부담의 登錄金, 財國轉入金, 寄附金,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補助金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항목들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理想的인 것인가는 大學 設立의 목적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따라서 각국의 大學, 특히 미국과 일본의 大學 財政 收入源과 우리나라 大學의 財政 收入源을 비교·검토하면서 어떠한 구성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고등교육비 재원별 구성비

(단위 : %)

구	분	국		고		학 생 납 입 금			재단(법인, 기부금 포함)			기타(용역 및 차입금 수입 포함)		
		한국		미국		한국	미국	일본	한국	미국	일본	한국	미국	일본
		50.5	59.3	88.0	44.8	14.5	6.0		3.7		4.7	22.5	6.0	
국	공													
사	립	1.0	18.4	22.4	79.1	38.7	66.2	5.5	14.7	3.0	14.4	28.2	8.4	

2) 高聖三, "私立大學의 財政, 支援과 自立", 大學敎育, 제39호, 1989.5, pp.32~39.

〈표 2〉 우리나라 GNP, 정부예산 대 문교 예산 비율 추이 (단위: 10 억 원)

연 도	GNP (A)	정부예산 (B)	문교예산 (C)	C/A (%)	C/B (%)
1987	106,024	15,560	3,124	2.9	20.1
1988	126,231	17,464	3,611	2.9	20.7
1989	144,066	19,228	4,059	2.9	21.1
1990	164,536	22,689	5,062	3.1	22.3
1991	185,737	27,182	5,183	2.8	19.1

*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경제기획원, 1991년 예산 설명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연구·발표한 우리나라 고등교육비의 財源別 構成비를 美國 및 日本과 비교하여 보면 앞의 〈표 1〉과 같다.³⁾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國立大學은 國庫補助가 총 예산의 50.5%, 學生 納入金이 44.8%, 기타 4.7%의 구성비로 되어 있다. 그러나 私立大學의 경우에는 學生 納入金이 총 예산의 79.1%, 財團轉入金이 5.5%, 국고 보조는 겨우 1%로 아주 미세한 실정에 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의 우리나라 GNP와 政府豫算 및 文教豫算額의 비율 및 변동 추이를 비교해 보던 위의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文教豫算額 대 GNP 비율은 평균 3% 안팎, 政府豫算額 대 GNP의 비율은 20% 안팎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선진 외국과 비교해 보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評價되고 있다. 더욱 주목이 되는 사항으로는 1991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과거 4년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의 같은 現況을 선진 각국과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선진국의 경우 GNP 대비 교육

〈표 3〉 GNP, 정부예산 대 공교육비 국제비교 (단위: %)

국 가	연 도	GNP 대 공교육비	정부예산 대 공교육비	공교육비 증 상 비	GNP 대 정상비
한 국	1991	2.8	19.1	85.0	2.8
영 국	1983	5.3	11.5	95.5	5.0
일 본	1982	5.7	19.1	—	3.9
프랑스	1982	5.8	—	93.5	5.4
미 국	1981	6.7	18.1 ('75)	93.2	6.5
서 독	1983	4.5	8.8	90.5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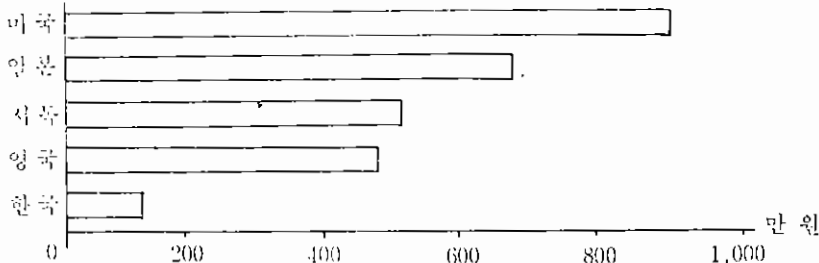
* 자료: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86. 윤정일 외, 대학교육 재정의 국제비교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8, p.42 일부 재인용.

투자율이 4.5~6.7%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91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3%에도 미달되는 2.8%에 그치고 있다.

또한 학생 1인당 公敎育費의 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 大學財政의 취약성이나 이르 인한 敎育不實의 實相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즉,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大學生 1인당 公敎育費는 약 1,300 천 원인 데 비하여 日本은 6,290 천 원, 美國은 8,750 천 원, 서독은 5,520 천 원 등으로 우리나라와 많은 差異를 보이고 있다. 학생 1인당 公敎育費는 그 절대 규모에서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1인당 GNP 대비 公敎育費 비율도 그 규모가 너무나 영세한 실정이다.

이처럼 부족한 財源은 大學敎育 여건의 부실을 가속화시키고, 나아가서는 國家發展의 기초가 되는 科學·技術의 개발이나 학문적 발전을

〈표 4〉 고등교육 기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국제 비교



* 자료: 조원규, "대학재정위기는", 대학재원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0.

3) 윤정일 외, 대학교육 재정의 국제비교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8.11, pp.25~123.

〈표 5〉 사립대학 국고 지원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지원 목적	'82	'83	'84	'85	'86	'87	'88	'89	'90 예산	'91 예산	비고
시설 확충 용자금 이차 보전	• 중·고등학교 시설에 따른 금 이차 지원	1,916		1,890	2,063	2,050	1,834	1,506	1,149	881	556	당초 49코 변경 56코
공과대학 지원	• 공과대학 시설 지원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3,616	3,774	2,058	1,976	2,500	2,496	2,598				
용자금 이차 보전 (KFX자금)	• 실험 기자재 충족으로 교육의 질 향상 부담								244	453	267	23코
시설 설비 및 도서 확충비	• 도서 및 실험 기자재									16,000	16,000	'90 : 81코 '91 : 83코
합 계	4건	5,532	3,774	3,948	4,039	4,550	4,330	4,104	1,393	17,334	16,803	

* 자료 : 文敎部 業務資料室.

저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私立大學에 대한 政府의 연간 支援金額은 학생 1인당 15천 원에 불과하다. 外國의 私立大學들이 평균 1,540천 원의 政府支援金額을 받는 것에 비하면 그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示唆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 이처럼 外部로부터의 支援도 없고, 學校財團으로부터의 轉入金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受益者 負擔이라는 원칙 아래 教育費의 거의 全額을 학생들의 納入金에 의존해 온 私立大學 財政의 취약성과 이로 인한 大學教育 與件의 不實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여기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私立大學의 國庫補助額을 살펴 보면 위의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私立大學의 國庫支援 규모는 최근 들어 그 액수가 늘어났다 해도 200억 원에도 못미치는 168억 원에 불과하여 매우 한심한 실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美國 私立大學의 경우에는 국고 보조가 총 예산의 18.4%, 학생 납입금이 38.7%, 재단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이 42.9%를 차지하고 있다. 日本의 경우에는 국고 보조가 私立大學 총 예산의 22.4%, 학생 납입금이 66.2%, 재단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이 11.4%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참조).

즉, 국고 보조에 대한 비율이 對美國은 1 : 18.4, 對日本은 1 : 22.4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6〉 일본 주요 사립대학에 대한 연간 국고 보조액(1988) (단위 : 억 원)

대	학	국고 보조액	대	학	국고 보조액
日	本 大	578	順	天 堂 大	150
慶	應 義 塾 大	358	日	本 醫 科 大	149
東	海 大	337	上	智 大	149
早	稻 田 大	335	明	治 大	144
近	畿 大	211	中	央 大	129
北	里 大	199	關	西 大	127
昭	和 大	193	法	政 大	126
東	京 慈 惠 會 醫 科 大	179	東	京 邦 大	125
東	京 女 子 醫 科 大	163	東	京 醫 科 大	116
東	京 理 科 大	152	帝	京 大	108

* 자료 : 朝日新聞, 1989년 9월 21일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의 재정위기와 그 극복을 위한 과제, 1990.6, p.17 재인용.

최근 日本 주요 私立大學에 대한 국고 지원 금액을 살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日本의 각 私立大學이 國家로부터 지원받는 액수는 대단한 것으로 일찍이 日本은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달러가 되던 1975년부터 私立大學 운영비 중 25%를 보조하기 시작하여 오늘과 같은 大學의 발전을 성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4. 私立大學의 國庫支援方案

私立大學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다양

한 財源을 개발하고 정부의 부담을 높임으로써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최소한 국제 평균 수준인 약 4,500 달러로 확보함과 아울러 합리적 재정 운용을 통해 교육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 중 국가, 즉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私立大學에 支援 또는 補助를 해 주는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정부가 직접 私立大學 財政의 일부를 국고에서 바로 지원해 주는 방안과 또 하나는 각종 租稅의 감면이나 면제, 公共料金 등의 차등 적용의 혜택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던 다음과 같다.

1) 直接 支援方案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國庫에서 直接 私立大學의 財政을 지원하는 방안으로서는 첫째로 국가 예산이나 地方自治團體의 예산으로 私立大學의 財政 중 一定率(20~30%) 이상을 운영비 또는 시설비 등 첨단 산업 설비와 기초과학 실험·실습 기자재 등의 구입 자금으로 전액 無償支援해 주는 방안을 들 수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GNP 대비 教育投資率이 4.5~6.7%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절반 수준인 평균 3% 수준에 머물러 있다.

둘째로 위와 같은 無償支援뿐만 아니라 私立大學의 발전 계획 등을 정부 당국에서 직접 검토하여 소요 자금의 일부를 금융적인 지원 방법, 즉 長期低利 條件으로 대출해 주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私立大學의 재정 부담을 덜어 주는 방법이다. 이에선 長期償還公債나 學校債의 發行, 私立振興基金 등의 擴大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작년(1989년)부터 자금이 助成되고 있는 私學振興基金을 당초의 목표액(1991년까지 550억 원, 1993년까지 1,500억 원)보다 대폭 확대하여 최소한 5,000억 원 이상으로 조성하여 이 기금으로 私學 教育設施의 改·補修 및 擴充과 교육 환경 개선 자금으로 금융 지원해 주고 그 지원 조건도 현행 年利 5%, 5년 據置 5년 분할 상환 조건에서 대폭 완화하여 명실상부한 私學振興을 위한 私學振興基金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私立大學의 과거 졸업정원제 때 의무적으로 시작된 일정율의 학비 감면, 즉 장학금을 國家에서 전액 보조해 주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재정 상태가 가뜩이나 좋지 않은 私立大學에서 총 예산의 10~15% 이상을 차지하는 學費減免額, 즉 장학금 지급 부담을 덜어 주어야만 私立大學이 財政的인 압박에서 다소나마 벗어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間接 支援方案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私立大學의 財政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로 私立大學이 운영하는 收益事業이나 私學財團이 취득하는 각종 施設 등 고정 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각종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여 私立大學에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私立大學의 재정 부담을 경감해 주는 方法이 있다.

둘째로 전기 요금이나 전화료 등의 公共料金 부담을 差等 적용하여 다른 業種보다 낮게 책정하고 그 負擔額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私立大學의 財政負擔을 줄여 주는 方案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셋째로 私立大學의 納入金 徵收을 完全 自律化시키고, 入學定員도 각 大學의 實情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大學의 財政 確保와 그 增大方案 등을 강구하고 私立大學의 財務構造를 健實하게 도모하여 大學教育의 質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기부금이나 기여 입학제 등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 될 것이다.

'90년 국세청의 국회 國政監査 자료에 의하면, 과거 5년간('85~'89) 法人稅의 감면액이 무려 4조 2천 5백억 원이라고 한다. 특히 이 중 1989년도 한 해 감면액만도 1조 4천 1백억 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大學教育의 公益性이나 國家發展에의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私立大學에도 一般 營利法人에게 주어지는 稅金減免의 혜택을 부여해도 국가 예산 편성에 커다란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5. 結 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私立大學의 公益性和 국가 발전에의 공헌도는 매우 지대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최근 私立大學의 財政難에 대한 政府當局의 支援策이 대단히 미미하다는 것은 국가 百年大計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다. 특히 최근 3~4 년간 매년 2~4 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조세 수입이 당

초 예산보다 많이 징수되어 追更 등의 예산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私立大學의 財政支援을 늘릴 수 없다는 변명은 論理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발전의 百年大計를 위해서도 私立大學에 대한 정부 당국 및 집권 여당의 과감하고도 확고한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되고 실천되어야만 할 것이다. *